

동맹파업의 함성이 울려 퍼진 구로 2단지, 가리봉 오거리



지난 해 산업현장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하루 평균 8명.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산다는 표현이 이들처럼 절실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만약 하루 평균 8명꼴로 국회의원이

죽는다면? 학생이 죽는다면? 그래도 세상은 지금처럼 태연할 수 있을까. 노동자. 그들은 죽음을 밥숟가락처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어떤 철학자보다 죽음에 명쾌하며 또한 삶에 너그럽다. 또한 지나온 역사가 증명해주듯 그들

은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못사람들이 독재정치
의 그늘 아래 몸을 숨길 때 그들은 노동조합을 건
설하였다. 못사람들이 6·29선언에 환호할 때 그
들은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하였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에서 그들은 항상 맨 첫 자리와 맨 마
지막 자리를 지켰다. 항상 영광이 돋보이는 가운데
자리를 양보했다. 그 대가는 참혹하다. 그들은 하
루 평균 여덟 명의 벗들을 잃고 있다. 그들에게는 분
명히 벗이다. 오로지 같은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도 동맹파업을 할 수 있는 이들이므로.

6·25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

1985년 구로 동맹파업의 전사(前史)는 그 앞 해
인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로에 최초로 공단이 들어선 건 1967년이었다.
1974년 말까지 모두 6개의 단지가 완공되는데 그
중 1, 2, 3 단지가 구로에 들어선 것이다. 1단지에는
모두 49개 업체가 입주하여 1만 4천여 명의 노
동자가 있었고, 가리봉동에 조성된 2단지에는 58
개 업체가 입주하여 1만 7천여 명의
노동자가 있었다. 3단지는 한국수출
산업공단의 6개 단지 중 가장 큰 규
모였으며 2단지 바로 남쪽에 자리 잡
았다. 이곳에는 모두 155개 업체가
입주하여 노동자도 3만 6천여 명에
이르렀다. 특히 2단지는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던 도시형 봉제공장들이 집
단적으로 들어와 있었으며 삼성, 효
성 등 대기업들의 의류제조업체들도
입주하고 있었다. 대우어패럴, 효성
물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 부흥사,
남성전기, 세진전자, 롬코리아, 삼성
제약 등이 2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었다.

구로 동맹파업 당시 효성물산의 노
조 위원장이었던 김영미(45) 씨가 효

성물산에 입사한 건 1983년이었다. 그는 효성물산
입사 6개월 만에 소모임을 결성할 수 있었다. 주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동료들이 이 소모
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첫 번째 소모임은 빠르
게 다른 동료들 사이를 파고 들어가 그로부터 1년
뒤에는 모두 5개의 소모임이 결성되었다. 하나의
소모임에 다섯 명씩 들어가 있으므로 모두 스물다
섯 명의 핵심인자가 발굴된 셈이었다. 이런 활동
덕택에 효성물산은 1984년 7월 14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 1984년은 효성물산 뿐
만 아니라 2단지의 여타의 사업장에서도 노조 결
성이 활발하게 일어난 해이다. 대우어패럴, 선일섬
유, 가리봉전자 등도 이즈음에 각각 노조를 결성했
다. 1984년 당시 구로 2단지의 전체 58개 업체 가
운데 33곳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1984년 한 해에 구로 2단지의 대규모 사
업장에서 노조가 잇달아 결성된 데에는 당시 노조
결성을 주도하던 사람들의 소모임과 관련이 있었
다. 비록 소모임이었으나, 이들은 다른 소모임과

구로동맹파업의 주역이었던 전 효성물산 노조 위원장 김영미 씨는 노동운
동을 계속해 오다 요즘은 대북교역 사업에 맘 홀리고 있다.





지금 대우어패럴 터에는 광전자 계열의 업체가 들어서 있다.

긴밀한 관련을 가졌으며 노조를 결성한 뒤에는 더욱 많은 교류를 가졌다. 1985년 구로 동맹파업의 불씨는 이미 그때부터 자라고 있었던 셈이다.

노조가 결성된 뒤로 각 노조는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회사 측의 부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자들이 버티어 준 덕택에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효성물산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80%에 이를 만큼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해를 넘겨 1985년, 구로 2단지의 각 노조들은 임금인상 투쟁을 시작하였고, 이때에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임금인상 투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한 조건을 제시해야 했고, 각 노조의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시안들을 함께 의논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비록 공동투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생산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공동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거지요.”

김영미 씨는 이미 구로 2단지의 각 노조들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6·25 이후 최초라는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의 분위기는 1985년 상반기 임금인상 투쟁을 거치면서, 각 노조별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회사 측의 부당한 선전에 맞설 수 있는 정책을 공동으로 생산하면서 무르익은 셈이다.

노동자의 벗은 노동자

가리봉 오거리라 불리는 공단 오거리에서 광명 쪽으로 백여 미터를 가면 옛 구로 2단지에 이른다. 가리봉 네거리라 불리는 그곳에 공단의 흔적이 남아 있지는 않다. 당시만 하더라도 가리봉 네거리를 중심으로 대우어패럴과 효성물산, 협동봉제와 제2협동봉제가 교차하여 마주보고 있었다. 지금 대우어패럴 터에는 광전자 계열의 업체가 들어서 있으며 효성물산 자리에는 8층에 이르는 대형 의류매장이 들어서 있다. 협동봉제 터 역시 예전의 흔적은 고스란히 지워져 있으며, 1985년 당시 동맹파업을 지지하던 대학생이 올라가 시위를 했다던 협동봉제의 굴뚝이 있던 자리에는 가리봉 네거리를 굽어보는 푸른 하늘만이 허허롭게 떠 있을 뿐이다.

옛 효성물산이 있던 곳부터 수출의 다리 부근까

지 공장을 두른 담이 길게 늘어서 있었으며 효성물산 바로 뒤편으로 세진전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담도 옛 공장건물도 찾아볼 수가 없다. 공장이 사라지면서 노동자도 사라졌다. 하지만 1985년 그들이 일구었던 동맹파업의 역사마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노조의 일상사업으로 노동자의 자기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연대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미 두 차례의 교육을 끝냈고 세 번째 교육을 하려던 참이었지요.”

김영미 씨에 따르면 대우어패럴 노조 지도부 3인의 구속이 있던 1985년 6월 22일은 안양 원로원에서 구로 2단지 각 노조의 조합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3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었다. 안양 원로원에서 교육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대우어패럴 노조 지도부의 구속을 알게 된 직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당시 전두환 정권이 대우어패럴 노조 지도부를 전격적으로 구속한 배경은 국회의 휴회와 학생들의 미 문화원 점거로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안양 원로원에 모여 있던 구로 2단지 각 노조의 지도부는 대우어패럴 노조 지도부의 구속이 노조 탄압의 신호탄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행동을 모색한다.

구로 동맹파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6월 22일 당일에는 대우어패럴 노조원들만이 회사 측에 항의를 하며 농성을 하다 해산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대우어패럴, 가리봉전자, 효성물산, 선일섬유, 청계노조 위원장 등이 동맹파업을 결의하였으며, 6월 24일 정오를 기해 동맹파업에 돌입하였다. 대우어패럴 노조 지도부의 구속으로 여타의 사업주들이 노조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파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동맹파업 결의는 사실상 22일 당일 밤에 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회사 측이 눈치 채지 못 하게 하느냐였죠. 그래서 동맹파업에 대해 합구하고 있다가 24일 당일 아침에 조합원들에게 소식을 전했죠.”

이 소식은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고 약속했던 정오가 되어서 모두 일손을 놓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조합원들은 스스로 철저히 보안을 지켰다. 이는 1985년 상반기 임금인상 투쟁을 거치면서 노조에 대한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 그리고 노동자 스스로의 각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동맹파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데에는 노동자들의 동료의식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각 노조 간의 일상적인 교류와 연대교육 등을 통해 동료애를 지니게 된 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장의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데에 구로 동맹파업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의 가장 믿음직한 벗은 역시 노동자 자신이었다.

한국인 노동자들로 들쭉거리던 공단은 '구로동 패션타운'으로 변하고 있고 그나마 남아 있는 업체들엔 이주노동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과 폭력배의 강제해산에 쫓긴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벌였던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가 있던 건물. 지금은 흔적도 없고 금은방이 즐비하다.

6일 동안의 동맹파업

이 동맹파업에는 대우어패럴,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 부흥사, 남성전기, 세진전자, 롬코리아, 삼성제약 등이 동참하였다. 그 중에는 중식을 거부하는 투쟁으로 참여한 곳도 있었으며, 직접 파업농성에 돌입한 곳도 있었다. 이처럼 구로 2단지 노조들이 동맹파업을 하고 있는 동안 바깥에서의 지지투쟁도 활발히 일어났다. 구로지역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연합,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청계피복 노조 명의의 전단지가 구로공단 일대에 널리 살포되었고,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22개 단체가 청계피복 노조 사무실에서 지지농성을 하기도 했다. 한편 6월 26일 오후 6시 40분경에는 동맹파업을 지지하는 대학생 두 명이 협동봉제 굴뚝 중간지점까지 올라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노동자, 학생 등이 가리봉 오거리와 구로공단 역 부근에서 시위

를 벌였다.

가리봉전자, 선일섬유, 효성물산 노조 등은 보복조치를 앉겠다는 회사 측의 약속을 받고 6월 27일 농성을 해산하였으나 대우어패럴은 경찰과 폭력배들이 강제로 해산시킨 29일까지 농성을 계속했다. 그 사이 효성물산 노조원 35명은 신민당 중앙당사를 점거하기도 하였으며 농성을 해산한 뒤에는 당시 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영미 씨를

비롯한 효성물산 노조원과 청계피복 노조원 백여 명이 당시에 종로 3가에 있던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를 점거하기도 했다. 불과 2시간 만에 이들은 해산 당하고 7명이 구속되었으나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의 끈질긴 농성에 화답하는 의미로 노동자의 의리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6일 간의 동맹파업은 이렇게 끝이 났고 결과는 참담했다. 구속 43명, 불구속 38명, 구류 47명, 7백여 명의 해고 및 강제사직 그리고 효성물산 등은 직장폐쇄까지 이르렀다.

“동맹파업을 계기로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게 있다면, 당시 어용이었던 한국노총 말고 우리 노동자를 위한, 우리들의 손으로 만든, 진정한 노동자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김영미 씨의 말대로 구로 동맹파업은 비록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이후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결성에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 실제로 이듬해 결성된 서울노련에는 당시 동맹파업으로

해고되거나 그 과정을 통해 각성한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가리봉 오거리

남부순환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가리봉 오거리에는 늘 그늘이 져 있다. 이 오거리에서 독산동 방향으로 백여 미터를 올라가면 모세미용실이 있던 건물을 만날 수 있다. 이 건물의 1층에는 1986년 당시 성도어패럴의 매장이 있었으며 2

층에는 모세미용실이 있었다. 구로 동맹파업에 자극을 받아 형성된 또 다른 단체인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이 모세미용실을 점거한 건 1986년 3월 19일이었다. 서노련은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과 비참한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모세미용실 점거농성을 주도하였는데, 당시 정권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백여 명의 노동자와 학생이 연행되었으며, 2층에서 한 노동자가 떨어져 중상을 입기도 했다.

가리봉 오거리는 공단으로 통하는 주요한 길목이다. 구로 2단지 노동자들이 구로공단 역에서 내리면 반드시 거쳐서 오는 지점이기도 했다. 따라서 가리봉 오거리에서는 술한 시위와 집회가 있었다. 준법투쟁을 위해 구로공단 역에 하차하여 머리띠를 질끈 묶은 노동자들이 가리봉 오거리를 지날 때면, 마치 터널에서와 같이 그들의 함성이 가리봉 오거리를 크게 울렸다.

1987년 8월 14일 구로 3단지의 금성오디오 노동



1986년에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과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점거농성이 있었던 모세미용실 자리에는 대형 노래방이 들어섰다.

자들의 농성을 시작으로 일어난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대투쟁 당시에도 가리봉 오거리는 시위대가 단골로 찾는 길목이었다. 지금도 가리봉 오거리는 옛 함성을 재현하듯 공명되는 소리로 조용할 날이 없다. 도로공사가 한창인데다 다섯 군데 방향에서 밀려오는 차량의 소음이 순환도로의 고가에 부딪혀 끊임없이 되울리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되울리는 건 소리만이 아니다. 하루 평균 8명의 벼를 잃어가며 노동자들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무엇도 잃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사진 노순택〉

손 홍 규

1975년 전북 정읍 출생

2001년 〈작가세계〉신인상 수상으로 등단

〈바람 속에 높다〉, 〈사람의 신화〉, 〈아이는 가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다〉, 〈폭우로 걸어 들어가다〉, 〈갈 수 없는 여름〉 등 발표.